

한중 ‘슬픔’과 ‘두려움’ 은유 표현 인지적 연구*

이 선 희**

<目次>

- | | |
|-------------------|---------------------|
| I. 들어가며 | III. 한중 ‘두려움’의 개념은유 |
| II. 한중 ‘슬픔’의 개념은유 | 1. 동일한 개념화 |
| 1. 동일한 개념화 | 2. 상이한 개념화 |
| 2. 상이한 개념화 | IV. 소 결 |
| | V. 나오며 |

I. 들어가며

본고는 인간의 기본 감정 중에서 ‘슬픔’과 ‘두려움’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나타나는 개념적 은유 양상에 대해 대조,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한중 감정 표현의 인지적 연구’의 한 부분으로 진행된 연구이다. ‘은유’는 낯설고 추상적인 목표영역을 익숙하고 구체적인 근원영역으로 개념화하는 인지기제이다. 개념적 은유란 인간의 개념체계 자체가 은유적이어서 인간의 생각하는 방식, 경험의 대상, 일상의 행동의 상당부분이 은유와 관련이 깊다고 보는 이론이다. 따라서 은유는 특수한 수사학적 현상이 아닌 일상 언어 자체의 특성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관점은 현재 많은 언어에서 보편성을 인정받고 있다.

* 이 논문은 2009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KRF-2009-332-A00137)

** 啓明大學校 中國語文學科 助教授

감정의 개념화가 많은 언어에서 보편적 양상으로 나타난다는 점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줄탄 퀘백세스, 2000) 가령 우리는 감정을 물리적 물질을 가지거나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우리는 ‘내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다’거나 ‘這件事給我帶來恐懼(이 일은 내게 공포를 가져다주었다.)’와 같은 은유 표현을 할 수 있다. 이는 감정이 기본적으로 인간의 몸과 생리적 반응의 인류보편성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는 한중 두 언어의 개념적 은유 양상에 대한 대조를 통해 한국어와 중국어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알아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II. 한중 ‘슬픔’의 개념은유

‘슬픔’의 개념화는 한중 두 언어에서 아주 유사한 양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¹⁾ 한국어 ‘슬픔’의 개념화 양상에 대해서는 이미 연구가 진행된 실정이다. 특히 임지룡(2006:1999-231)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 그는 목표영역 ‘슬픔’을 개념화하는데 ‘그릇 속의 액체, 적, 물건, 식물, 음식물, 강물·바닷물, 폭풍우, 실, 천, 질병, 우는 아기’의 11가지 근원영역이 사용된다고 보았다. 본고에서는 이를 따르기로 하며, 한국어 예문 또한 여기서 인용하였음을 밝힌다. 중국어의 경우, ‘슬픔’의 개념화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찾아볼 수 없고, 대부분이 영어와 비교하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으며 학자들 간의 견해차도 크다. 예로 岳好平(2009)에서는 중국어 ‘슬픔’의 개념화에 ‘아래, 그릇 속의 액체, 암흑, 추위, 회색, 내장과 오관의 변화’의 6가지 근원영역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李秀芝(2009)는 ‘아래, 그릇 속의 액체, 암흑’의 3가지로 보았다. 또 ‘슬픔’의 개념화 양상에 대한

1) Barcelona(1986, 줄탄 퀘백세스 2000:58에서 재인용)는 인지언어학의 관점에서 영어의 슬픔은유를 분석한 결과, ‘아래, 열 부족, 생기 부족, 그릇 속의 액체, 물리적 힘, 자연력, 병, 정신병, 짐, 유기체, 포획된 동물, 적’의 근원영역을 밝혀냈다.

한중비교 연구는 왕여방(2006)이 유일해 보이는데, 중국어 ‘슬픔’이 ‘액체, 구체물, 구체사, 식물(꽃), 먹거리, 투쟁의 상대자, 기후, 색채’의 8가지 근원영역으로 개념화된다고 하였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기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되, 한국어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임지룡(2006)을 따르며, 중국어에 대해서는 북경대 언어 코퍼스를 통해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 장에서는 한중 ‘슬픔’의 개념적 은유양상에 대해, 유사점과 차이점으로 구분하고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1. 동일한 개념화

첫째, 슬픔은 그릇 속의 액체이다. (1)에서 보면, ‘涌出’, ‘涌上’, ‘沉浸’, ‘充滿’, ‘沉溺’, ‘沉淀’, ‘沉澱’, ‘越積越濃’, ‘涌起’ 등의 표현에서 이를 알 수 있다. 한국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의 ‘고이다, 부어놓다, 적서 올라오다’, ‘차오르다’, ‘차다’, ‘괴다’, ‘서리다’, ‘돌다’, ‘잠기다’ 등의 서술어를 통해서 나타난다.

- (1) a. 他心裏涌出一種巨大的悲哀。(그는 마음속에서 거대한 슬픔이 솟아 올랐다.)
- b. 一股莫名的憂愁涌上心頭。(알 수 없는 슬픔이 마음에서 솟았다.)
- c. 他沉浸於悲傷之中。(그는 슬픔에 빠져있다.)
- d. 失戀後, 他心中充滿悲傷。(실연 후에 그의 마음에는 슬픔이 가득했다.)
- e. 他們一遇到挫折就不能自撥, 常常沉溺於悲哀。(그들은 일단 좌절을 겪으면 스스로 떨치지 못하고 늘 슬픔에 빠져있다.)
- f. 那一份錯失的憂傷, 只能沉淀在我們的心裏, 越積越濃, 越積越惆悵。
(그 잘못의 슬픔이 우리 마음속에 가라앉아 쌓일수록 짙어지고 짙어질수록 더 슬퍼진다.)
- g. 一股絕望的悲哀涌上心頭。(절망적인 슬픔이 마음속에 솟았다.)

- h. 心裏常常湧起一股難以名狀的惆悵和懼恐, 淒涼的愁緒充滿了所有的空間。(마음에는 항상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두려움이 솟았다. 처량한 서글픔이 모든 공간에 가득찼다.)
- i. 悲哀的心却再次高漲起來。(슬픔이 다시금 고조되었다.)
- j. 時間可以平息憤怒, 却難以冲淡悲哀。(시간이 지나면 분노는 사그라들지만, 슬픔은 씻어지지 않는다.)
- k. 他那顆枯澀的心底泛起一種深切的悲哀。(그의 메마른 마음속에 깊은 슬픔이 솟았다.)
- l. 臉上浮現出無限的痛苦和悲傷。(얼굴에 무한한 고통과 슬픔이 떠올랐다.)

- (2) a. 슬픔이 고이다.
- b. 슬픔을 부어놓다.
- c. 슬픔이 전신을 적셔 올라오다.
- d. 슬픔이 차오르다.
- e. 슬픔이 (가득) 차다.
- f. 슬픔이 괴다.
- g. 슬픔이 서리다.
- h. 서글픈 생각이 돌다.
- i. 슬픔에 잠기다.

둘째, 슬픔은 적이다. 중국어 예 (3)에서 ‘슬픔’과 호응하는 서술어 ‘襲來, 襲擊, 禁不住, 壓制, 窺探, 刺痛, 抵得了, 抵擋, 抵抗, 抵不住, 強壓, 趕跑, 壓在心底, 籠罩, 塞住, 壓倒, 折磨, 趕走, 驅到, 攔住’ 등의 표현들에서 보듯이, ‘슬픔’은 ‘적’으로 개념화된다. 한국어도 동일한데, (4)를 보면 ‘슬픔’과 호응하는 ‘찾아오다, 엄습하다, 급습하다, 닥치다, 부딪히다, 쌓이다, 감당 못하다, 눈을 후비다, 가슴을 찌르다, 싸우다, 누르다’ 등의 서술어들이 이를 보여준다.

- (3) a. 不覺悲淒襲來。(비에가 절로 엄습해왔다.)
- b. 一陣無名的悲哀突然襲擊了她。(갑자기 알 수 없는 슬픔이 그녀를

- 엄습했다.)
- c. 想不到的悲哀的襲擊使她麻木了。(생각지도 못한 슬픔의 급습이 그녀를 마비시켰다.)
- d. 禁不住又悲從中來。(슬픔이 다가오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 e. 不應過分壓制自己的悲傷。(자신의 슬픔을 지나치게 억눌러서는 안 된다.)
- f. 你窺探了我個人的悲傷, 並且挖苦和嘲弄另一個人的痛苦。(너는 내 슬픔을 엿보고, 또 다른 사람의 고통을 놀렸다.)
- g. 我之心也被悲哀深深地刺痛了。(내 마음은 슬픔으로 깊이 상처 입었다.)
- h. 可以抵得了這重重的悲苦辛酸。(이 겹겹의 슬픔과 아픔을 견딜 수 있다.)
- i. 一陣難以抵擋的悲痛揉斷了她的柔腸。(저항하기 어려운 비통함이 그녀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 j. 足以抵抗得住喪妻的悲苦。(아내를 잃은 슬픔과 고통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 k. 我終身的恬美記憶的總量也抵不住這一點悲苦慚愧。(평생의 달콤하고 아름다운 기억들을 합쳐도 이 슬픔과 부끄러움을 이길 수 없다.)
- l. 研究室的所有年青教師, 更是把悲痛強壓心底。(연구실의 모든 젊은 교사들은 더욱 슬픔을 마음속에 억눌렀다.)
- m. 咱們唱歌, 把悲愁趕跑。(우리 노래로 슬픔을 쫓아버립시다.)
- n. 他只有把悲痛壓在心底。(그는 슬픔을 마음속에 누를 수 밖에 없다.)
- o. 兩人日日被悲哀籠罩。(두 사람은 날마다 슬픔에 휩싸여있다.)
- p. 她一直被悲愴塞住, 神情有些恍惚。(그녀는 줄곧 상심에 젖어 정신이 좀 희미하다.)
- q. 在這樣輕的年紀就已經被悲哀壓倒了。(이렇게 젊은 나이에 벌써 슬픔에 빠져있다.)
- r. 一個可憐的老頭子, 被憂傷和老邁折磨得好苦。(불쌍한 늙은이, 근심과 노쇠함으로 인해 고생이 심하다.)
- s. 可是你是個好漢子, 你會把憂愁趕走的。(하지만 너는 사나이다. 너는 슬픔을 쫓아낼 수 있을 것이다.)
- t. 把憂愁驅到墳墓裏去。(슬픔을 무덤 속으로 쫓았다.)
- u. 一陣悲痛攔住了他的心。(비통함이 그녀를 움켜쥐었다.)

- (4) a. 슬픔이 찾아오다.
 b. 슬픔이 엄습하다.
 c. 슬픔이 급습하다.
 d. 슬픔이 닥치다.
 e. 슬픔에 부딪히다.
 f. 슬픔에 쌓이다.
 g. 슬픔을 감당 못하다.
 h. 슬픔이 눈을 후비다.
 i. 슬픔이 가슴을 찢르다.
 j. 슬픔과 싸우다.
 k. 슬픔을 누르다.

셋째, 슬픔은 물건이다. 이는 (5)에서 ‘掩飾着, 埋藏, 埋在了, 帶來, 分享, 留給, 托給, 裝載得下, 裝滿了, 扔進’ 등의 표현에서 알 수 있다. 특히 ‘슬픔’이 ‘把구문’에서 전치사 ‘把’의 목적어로 쓰이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把’의 목적어가 특징적인 사물임을 생각해보면 ‘슬픔’이 중국어에서도 ‘물건’으로 개념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개념화 역시 한국어에서도 나타나는데 (6)의 ‘슬픔’과 호응하는 서술어 ‘크다, 무겁다, 가라앉다, 안겨주다, 싣고 오다, 담아두다, 나누다, 오가다’ 등이 이를 말해준다.

- (5) a. 母親掩飾着自己的悲哀。(어머니는 자신의 슬픔을 감추었다.)
 b. 她只能把悲哀埋藏在心中。(그녀는 슬픔을 가슴 속에 감출 수밖에 없었다.)
 c. 現在他把悲傷深深埋在了心裏。(그는 지금 슬픔을 마음 속 깊이 묻었다.)
 d. 這雖然給他帶來悲哀, 但是他也覺得心裏輕鬆一點。(이것이 비록 그에게 슬픔을 가져다 주긴했지만 그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짐을 느꼈다.)
 e. 他分享人民的悲哀與喜悅, 痛苦與歡樂。(그는 사람들의 슬픔과 기쁨, 고통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었다.)
 f. 把悲傷留給自己。(슬픔을 자기에게 남겨두어라.)

- g. 把悲哀托給了從軍隊趕回的丈夫。(슬픔을 군대에서 돌아온 남편에게 맡겼다.)
- h. 哪一個人的心裏裝載得下這樣沉重的悲傷? (어느 누구의 마음에 이렇게 무거운 슬픔을 담을 수 있을까?)
- i. 他們的裝滿了憂鬱悲憤的心裏, 萬沒想到在這個破亂的國家裏還能有這樣的人存在。(침울하고 비통으로 가득찬 그들의 마음속엔, 이 망가진 국가에 이런 사람이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다.)
- j. 我要把你的憂愁扔進大海。(나는 너의 슬픔을 바다에 던져버릴 것이다.)

- (6) a. 슬픔이 크다.
 b. 슬픔이 무겁다.
 c. 슬픔이 가라앉다.
 d. 슬픔을 안겨주다.
 e. 슬픔을 싣고 오다.
 f. 슬픔을 담아두다.
 g. 슬픔을 나누다.
 h. 슬픔이 오가다.

넷째, 슬픔은 식물이다. 중국어와 한국어에서 모두 ‘슬픔’은 ‘식물’로 개념화된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표현양상에서 차이가 나는데 중국어에서는 슬픔에 젖은 사람의 모습을 식물로 개념화하는 경우가 많다. (7a)(7b)의 ‘悲哀的根子’와 ‘無根的悲哀’ 등을 보면, 슬픔의 근원을 식물의 뿌리에 비유하고 있다. 또 (7c)(7d)를 보면 중국어에서 슬픔에 젖은 모습을 시든 식물로 개념화하기도 한다. (7f)의 ‘憂鬱的芽’도 역시 ‘슬픔’을 ‘싹’이 있는 ‘식물’로 본 예이다. 한국어 (8)에서 ‘심다, 복돋우다, 키워나가다’ 등도 식물에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여기서 ‘슬픔’의 서술어도 사용되고 있다.

- (7) a. 另一方面, 還大談所謂“臺灣人的悲哀”, 並把悲哀的根子引向中國大陸。(한편 또 소위 ‘대만인의 슬픔’을 한참 이야기했고, 슬픔의 뿌리를 중국대륙으로 돌렸다.)

- b. 結果一定感到無根的悲哀。(결과 분명히 뿌리없는 슬픔을 느꼈다.)
- c. 他一聽到這令人難過的消息就蔫了。(그는 괴로운 소식을 듣고서 풀이 죽었다.)
- d. 這一回才看清, 她滿面愁容, 身子蜷縮着, 像一株蔫了的花朵。看來她有難以排解的憂愁。(이번에는 분명히 볼 수 있었다. 그녀는 얼굴에 슬픔이 가득했고, 몸은 마치 시든 꽃처럼 구부러져 있었다. 펼쳐내기 어려운 슬픔이 있어보였다.)
- e. 露出一點憂鬱的芽。(우울의 싹을 드러냈다.)

- (8) a. 슬픔을 심다
b. 슬픔을 복돋우다
c. 슬픔을 키워나가다

다섯째, 슬픔은 음식이다. (9)의 ‘嚐盡, 嚐試, 嚐着, 飽嚐, 咀嚼, 咽回, 嚼出, 吞不下吐不出, 咽下, 淡淡’등과 같은 표현들은 주로 음식과 호응하여 쓰이는 것들로 중국어에서 ‘슬픔’이 ‘음식’으로 개념화됨을 보여준다. (10)의 한국어도 마찬가지로 ‘맛보다, 씹다, 삼키다, 토해내다, 삭이다’등이 이에 해당된다.

- (9) a. 一代人嚐盡了人生的最大悲傷。(한 세대가 인생의 가장 큰 슬픔을 모두 맛보았다.)
- b. 她還從沒嚐試過悲傷的滋味。(그녀는 아직 슬픔의 맛을 보지 못했다.)
- c. 苦嚐着“生不能見人, 死不能見尸”的悲痛。(살아있을 때 산 모습을 못보고, 죽어서 시신도 못보는 아픔을 맛보았다.)
- d. 死了一回, 飽嚐了悲哀和痛苦。(한 번 죽음으로 슬픔과 고통을 충분히 맛보았다.)
- e. 過了幾十年或許更久, 人們還能咀嚼這悲歡。(몇 십 년 혹은 더 많은 세월이 지나도 사람들은 여전히 이 희비를 음미할 것이다.)
- f. 他把悲痛咽回肚子裏。(그는 비통함을 뱃속으로 되삼켰다.)
- g. 我一直默默地咀嚼着, 嚼出火、嚼出光, 有時也嚼出一點悲涼。(나는

줄곧 조용히 씹고 있었다. 불과 빛을 내뿜고, 또 슬픔을 내뿜기도 했다.)

- h. 他百感交集, 嘴唇翕動着, 目光却痴痴呆呆, 似在咀嚼這人生的悲哀……(그는 만감이 교차했다. 입술을 모았다 벌렸다 하면서도 눈빛은 멍하니 인생의 슬픔을 씹는 듯했다.)
- i. 有堵在胸口的吞不下吐不出的悲哀。(가슴에 막혀 삼킬수도 뱉을 수도 없는 슬픔이 있다.)
- j. 咽下唇邊之悲傷。(입가의 슬픔을 넘겼다.)
- k. 她的聲音聽起來十分恬美, 又帶著淡淡哀愁。(그녀의 목소리는 너무 아름다웠으며, 약간의 애수를 띠고 있었다.)

- (10) a. 슬픔을 맛보다.
b. 슬픔을 씹다.
c. 슬픔을 되씹다.
d. 슬픔을 곹씹다.
e. 슬픔을 삼키다.
f. 슬픔을 토해내다.
g. 슬픔을 삭이다.

여섯째, 슬픔은 강물, 바닷물이다. (11)에서 ‘像潮水似地涌來, 像潮水一樣涌上心頭, 像潮水一般, 潮涌, 流下, 流水一般, 發源了一條長長的愁之河, 海水似的, 苦海’등의 표현들이 중국어에서도 ‘슬픔’은 ‘강물, 바닷물’로 개념화됨을 보여준다. (12)의 한국어 예를 보면 ‘파도처럼, 조수처럼, 밀려온다, 물결치다, 차오르다’와 같이 중국어와 동일하게 개념화됨을 알 수 있다.

- (11) a. 那種急躁、失落、孤獨、寂寞、甚至悲苦, 像潮水似地涌來。(초조함, 실의, 고독, 적막, 심지어 비애까지도 조수처럼 밀려왔다.)
b. 關於胡子的悲與喜, 像潮水一樣涌上心頭, 沒有來得及停留, 轉瞬間就退下去了。(수염에 관한 슬픔과 기쁨은 밀물처럼 마음속에 솟아올라, 멈출 수도 없이 순식간에 밀려갔다.)
c. 憂愁像潮水一般的在心頭泛濫了。(우수가 조수처럼 마음에서 범람

하였다.)

- d. 眼前書冊縱橫, 不免閑愁潮湧。(눈앞에 책이 어지럽게 놓여있으니, 괜한 근심이 밀물처럼 몰려온다.)
- e. 嘩嘩流下千古的哀愁。(천고의 슬픔이 주르륵 흐른다.)
- f. 小詩就已經透露出流水一般的愁滋味。(시에서는 강물과 같은 근심스런 심정을 나타내었다.)
- g. 從此你緊鎖的眉宇間發源了一條長長的愁之河。(그 후로 너의 굳게 닫힌 양미간에 긴 수심의 강이 시작되었다.)
- h. 他只能用他的骨瘦如柴的身軀負着那片海水似的愁悶。(그는 뼈마른 몸으로 바다와 같은 근심을 짊어질 수밖에 없었다.)
- i. 此刻已經沉溺在憂愁的苦海裏。(이 순간은 이미 근심의 고향 속에 가라앉아있다.)

- (12) a.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들다.
 b. 슬픔이 조수처럼 밀려오다.
 c. 서글픔이 밀려들다.
 d. 비애가 흐르다.
 e. 서러움이 물결치다.
 f. 슬픔이 차오르다.

일곱째, 슬픔은 기후이다. 중국어에서 ‘슬픔’은 ‘기후(날씨)’로도 개념화된다. 이는 (13)의 ‘心寒, 心灰意冷, 寒心, 一寒, 陰鬱, 布滿陰雲, 陰着, 冷若冰霜, 愁雲, 愁雲慘霧, 淒風苦雨’ 등의 표현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13a), (13b), (13c), (13d), (13f) 등에서 보듯이 ‘추운 날씨(차가움)’로 개념화되는 예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또 ‘슬픔’은 ‘먹구름(陰雲, 愁雲)’이나 ‘안개(慘霧)’, ‘비(苦雨)’, ‘바람(淒風)’, ‘서리(冰霜)’처럼 흐리고 어두우며, 비바람이 부는 날씨로 개념화되기도 한다. 이는 중국어에서 ‘기쁨’이 밝고 맑은 날씨로 개념화되는 것과 상반된다.

한국어에서도 ‘슬픔’은 ‘기후’로 개념화된다. 하지만 (14)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중국어와 달리 한국어는 주로 ‘폭풍우, 비’등의 근원영역이 사용됨

을 알 수 있다. 이들은 모두 ‘기후’에 해당되므로 여기서는 한중 동일한 개념화로 보았다.

- (13) a. 這段話聽起來真是令人心寒, 可悲! (이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마음이 아프고 슬프다.)
 b. 他心灰意冷了, 提出離婚。 (그는 낙담을 하고서 이혼을 요구했다.)
 c. 她辜負了我的信任, 真令我寒心, 從今後我還敢對誰好…… (그녀는 나의 신임을 저버렸기에 나는 낙심하였다. 앞으로는 누구에게 잘 해주기가 무서웠다.)
 d. 她表面上僅是臉色一寒, 沒有說一句話, 却在靜夜裏蒙着頭暗暗地痛哭幾次。
 e. 他有點茫然地聽完翻譯的話, 片刻後, 放下電話的他換了副冷若冰霜的臉。 (그는 약간 망연자실하게 통역의 말을 다 들은 후, 좀 있다가 전화를 내려놓더니 차가운 얼굴이 되었다.)
 f. 臉色驟然一變, 布滿陰雲。 (안색이 갑자기 변하더니 어두운 구름이 잔뜩 드리워졌다.)
 g. 街上都是陰着臉騎車上班的人。 (거리에는 모두 어두운 얼굴로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 사람들이었다.)
 h. 但在座的人們却表情陰鬱, 憂心忡忡。 (하지만 앉아있는 사람들은 음울하고 근심스런 표정이었다.)
 i. 一陣喜悅, 把心頭的愁雲驅散。 (순간의 기쁨이 마음의 근심의 그림자를 쫓아냈다.)
 j. 人的臉是最容易變的, 用不了加多少錢, 那副愁雲慘霧的苦臉立刻開朗, 露出一縷春風。 (사람들의 얼굴은 가장 쉽게 변한다. 몇 푼 보태지 않아도 우울하고 수심에 가득 찬 얼굴이 금새 밝아지면서 한 줄기 봄바람이 분다.)
 k. 夜裏, 淒風苦雨, 我們睡在冰冷的地上, 周圍真像墳墓一樣的靜寂。
 (밤에 처량한 신세로 우리는 차가운 바닥에 잠을 잤다. 주위가 마치 무덤처럼 고요했다.)
- (14) a. 슬픔이 일다.
 b. 슬픔이 불어 닥치다.

- c. 슬픔이 회오리치다.
- d. 슬픔이 휘몰아치다.
- e. 슬픔에 젖다.
- f. 슬픔이 가슴을 적시다.

여덟째, 슬픔은 실이다. 중국어에서 ‘슬픔’과 같은 감정은 흔히 ‘실’로 개념화되는데, 대표적인 표현형식이 (1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실’을 뜻하는 ‘絲, 縷’를 양사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悲哀的絲絲感慨, 一絲悲哀, 幾縷灰色的悲哀, 幾絲深沉的悲涼’ 등의 예가 이에 해당된다. 그 밖에 ‘愁絲, 相互交織’ 등의 표현을 보면, ‘슬픔’이 ‘실’처럼 짜여질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한국어에서 이 개념화의 표현형식은 중국어처럼 다양하지 못해 (16) ‘슬픔은 자아내다’ 정도에 불과하다.

- (15) a. 我不由得生發出憐憫和悲哀的絲絲感慨來。(나도 모르게 연민과 슬픔의 감개가 생겨났다.)
- b. 疲倦消瘦的臉上現出一絲悲哀。(피로하고 갇마른 얼굴에 한 가닥 비애가 나타났다.)
- c. 在一番轟轟烈烈, 熱熱鬧鬧之後, 往往沉寂出幾縷灰色的悲哀。(한바탕 왁자지껄하고 활기찬 시간 후에는 몇 가닥 회색의 비애가 고요히 생겨난다.)
- d. 就會在他偶爾顯得疲乏的眼神中讀到幾絲深沉的悲涼。(가끔 노곤한 그의 눈빛에서 몇 가닥 깊은 비애를 읽었다.)
- e. 心中不免又引起一種愁絲。(어쩔 수 없이 마음속에 우수가 생겨난다.)
- f. 重逢的喜悅與追思亡者的悲哀相互交織。(재회의 기쁨과 망자를 그리워하는 슬픔이 서로 뒤섞여있다.)
- g. 她用一種纏綿悱惻的聲調接著往下說。(그녀는 애절한 어조로 말을 이어갔다.)

- (16) a. 슬픔을 자아내다.

아홉째, 슬픔은 질병이다. 두 언어에서 모두 ‘슬픔’은 ‘질병’으로 개념화 되는데, (17a)(17b)의 ‘强忍着, 傳染’ 등은 ‘슬픔’을 ‘질병’처럼 참고, 전염시키는 것으로 개념화한다. (17c)(17d)의 ‘暈倒, 蒼白了, 憔悴’ 등은 ‘슬픔’이 ‘질병’처럼 사람을 기절시키고 창백하고 초췌하게 만들 수 있는 것으로 본 예이다. 한국어의 예는 많지 않은데, 임지룡(2006)에서는 (18)을 들고 있다.

- (17) a. 她還是强忍着悲痛。(그녀는 비통함을 꼭 참고 있다.)
 b. 再把悲哀傳染給四週每一個人! (또 다시 슬픔을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전염시켜라!)
 c. 到處有人因為過分的悲痛而暈倒。(곳곳에 지나친 슬픔으로 기절하는 사람들이 있다.)
 d. 她的臉由於守護和悲哀變得蒼白了。(그녀의 얼굴이 수호와 비애로 창백해졌다.)
 e. 她被憂傷折磨的日漸憔悴。(그녀는 슬픔으로 나날이 초췌해졌다.)

- (18) a. 슬픔을 치유하다.

이상으로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공통으로 보이는 ‘슬픔’의 개념화 양상들을 살펴보았다. 두 언어에는 9개의 근원영역이 ‘슬픔’을 개념화하는데 사용되는데, 이는 ‘그릇속의 액체, 적, 물건, 식물, 음식, 강물·바닷물, 기후, 실, 질병’이다.

2. 상이한 개념화

한중 두 언어에는 공통적으로 보이는 개념화 양상 외에, 언어 특수적인 ‘슬픔’의 개념화도 있다. 먼저 중국어에서 자주 보이는 ‘슬픔’의 개념화 양상들을 살펴보자. 여기서는 ‘아래, 어둠, 글씨’의 3가지 근원영역을 살펴볼 것이다.

먼저, 중국어에서 ‘슬픔’은 ‘아래’다. 이는 ‘기쁨’이 근원영역 ‘위’로 개념화되는 것과 반대가 된다. (19)의 예에서 확인하듯이 중국어는 슬프고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를 표현하는 말 ‘情緒低落, 心情沉重, 消沉, 情緒低沉, 沉悶的心情’ 등이 자주 쓰이는데, 이들은 모두 ‘아래’로 떨어지거나 가라앉음을 나타낸다. 또 머리와 허리를 굽히는 신체자세와 관련되는 ‘垂頭喪氣、灰心喪氣²⁾, 萎靡不振’와 같은 표현들도 ‘슬픔’을 나타내는데 자주 사용된다.³⁾

- (19) a. 小五的思想包袱越背越重, 情緒顯得非常低落, 整天垂頭喪氣地一個人坐在小酒館裏喝悶酒。(小五의 정신적인 부담이 점점 더 커져 마음이 매우 무거워보였다. 하루 종일 기가 죽어서 술집에 앉아 술만 마신다.)
- b. 她心情沉重地趕緊加快了腳步。(그녀는 무거운 마음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 c. 由於這一打擊, 她一度十分消沉。(이번 타격으로 그녀는 매우 의기소침해졌다.)
- d. 但我的情緒却一直比較低沉, 因為我覺得自己處處不如人。(하지만 모든 것에서 남보다 못하다는 생각 때문에 내 기분은 줄곧 가라앉아 있었다.)
- e. 她於是趁着亂也舒緩一下沉悶的心情。(그녀는 어지러운 틈을 타서 무거운 마음을 진정시켰다.)

- 2) ‘灰心喪氣’는 낙담하여 아래로 숙인 모습을 나타내므로 여기서는 ‘슬픔은 아래’의 개념화에 넣었지만, 동시에 ‘슬픔은 어둠(회색)’에도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실 이처럼 두 가지 개념화에 모두 해당되는 예들이 그 밖에 또 있지만 여기서는 모두 어느 한 가지 개념화의 예로만 설명했다.
- 3) 임지룡(2006)은 ‘슬픔은 아래’를 한국어에 존재하는 개념화로 보지 않았는데, 가령 ‘아래’를 나타내는 ‘슬픔은 무거운 것’, ‘슬픔이 가라앉다’ 등의 예를 ‘슬픔은 물건’, ‘슬픔은 그릇 속의 액체’에 해당되는 개념화의 예로 보았다. 하지만 필자가 보기에 중국어의 많은 예들이 모두 ‘슬픔은 물건’이나 ‘슬픔은 그릇 속의 액체’ 개념화로 보기에 무리가 있으므로, 한국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슬픔은 아래’를 나타내는 예가 많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이는 또 ‘기쁨은 위’라는 개념화에 상대된다.

- f. 另一方面其背後還蘊含着一種極其深沉的悲哀。(한편 이면에는 아주 깊은 비애를 내포하고 있다.)
- g. 即使見了面說了話, 也只會讓我陷入悲哀的心情中。(만나서 이야기 하더라도 나는 비애의 기분 속으로 깊이 빠질 뿐이다.)
- h. 對於灰心喪氣的人, 我們常常鼓勵說要有一種自信心。(풀이 죽어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흔히 자신감을 가지라고 격려한다.)
- i. 他就精神沮喪, 萎靡不振了。(그는 풀이 죽어서 활기가 없다.)

또 중국어에서 ‘슬픔’은 ‘어둠(회색, 검정색)’으로 개념화된다. (20)에서 ‘黯然, 黑色, 黑暗, 灰色, 俱灰’ 등의 언어표현이 이를 보여준다. (20b)의 ‘黑色星期天’은 ‘우울하고 슬픈 일요일’을 뜻하는 말이며, (20d)에서도 슬픈 심정을 ‘黑暗的深淵’에 비유하고 있다. 또 (20i) ‘陰暗下來’, (20j) ‘陰沉’, (20k)의 ‘陰沉下來’ 등의 표현은 ‘슬픔’을 ‘어둠’으로 개념화한 경우이다.

- (20) a. 全球的影迷黯然神傷: 她畢竟走得過於匆忙——年僅63歲。(전세계의 영화팬들은 모두 슬픔에 젖었다. 그녀가 겨우 63세라는 이른 나이에 갑자기 떠났기 때문이다.)
- b. (奧運會)韓國羽毛球球隊遭遇“黑色星期天”。(한국 배드민턴선수들은 ‘검은 일요일’을 맞이했다.)
- c. 聽到那消息, 她不禁黯然淚下。(그 소식을 듣자, 그녀는 우울해지면서 눈물이 나오는 걸 참을 수가 없었다.)
- d. 好像預料到就要從光輝的天空墜入黑暗的深淵裏去似的, 他絕望地、悲傷地、而且多少帶了一點掙扎地說。(마치 밝은 하늘에서 갑자기 암흑같은 심연으로 떨어진 듯, 그는 절망과 슬픔으로 겨우 말했다.)
- e. 他感到萬念懼灰, 甚至嘗試過自殺。(그는 모든 의욕을 상실했으며, 심지어 자살까지 시도했다.)
- f. 在一番轟轟烈烈, 熱熱鬧鬧之後, 往往沉寂出幾縷灰色的悲哀。(한바탕 요란스런 소동이 끝난 후에는 주로 몇 줄기 고요한 회색 슬픔이 생겨난다.)
- g. 他只是沉浸在自己灰色的情緒裏。(그는 회색 기분 속에 빠져있을 뿐이다.)

- h. 他的心情像是那一大片的暗灰色的雲彩一樣。(그의 기분은 어두운 회색 구름과 같았다.)
 i. 他看着乃文的表情逐漸陰暗下來。(그는 乃文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을 보고 있었다.)
 j. 往日熱情微笑的臉即變得陰沉沉的。(옛날 친절하고 미소 짓던 얼굴이 어둡게 변했다.)
 k. 媽媽一聽, 臉頓時陰沉下來。(듣자마자 엄마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슬픔’은 ‘글씨’로도 개념화된다. (21)의 예에서 보듯이, 중국어에서 ‘슬픔’은 ‘글씨’와 같이 쓰거나(寫) 인쇄되고(印着) 새길(刻畫) 수 있는 것으로 개념화된다. 이는 중국어에서 ‘기쁨’이 ‘글씨’로 개념화되는 것과 동일하다.

- (21) a. 只是她身着喪服。只是她清秀的臉上寫滿了悲哀。(다만 그녀의 청순한 얼굴에 슬픔이 가득 쓰여져 있다.)
 b. 悲傷的神情寫在臉上。(슬픔의 표정이 얼굴에 쓰여져 있다.)
 c. 臉上寫滿了深切的悲哀。(얼굴에 깊은 슬픔이 쓰여 있다.)
 d. 他那悲慘的處境刻畫在他臉上, 流露在他聲音裏。(슬픈 그의 처지가 얼굴에 새겨져 있고, 목소리에 드러나 있다.)
 e. 或者我所愛的眼睛裏印着悲哀。(혹은 내가 좋아하는 눈에 비애가 찍혀져 있다.)

반면, 중국어에는 없지만 한국어에는 ‘슬픔’을 개념화하는 근원영역으로 ‘천’과 ‘우는 아기’가 있다.⁴⁾

- (22) 슬픔을 짜다.
 (23) 슬픔을 달래다.

4) 본고는 한국어 개념화에 대해서는 임지룡(2006)을 따르기로 한다. 하지만 이러한 개념화는 그 예가 극히 적어 한국어에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개념화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이상으로 한중 ‘슬픔’ 개념화양상에 대해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해보았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슬픔’의 은유적 양상 중에 ‘그릇 속의 액체, 적, 물건, 식물, 음식물, 강물·바닷물, 기후, 실, 질병’ 등의 9개는 한중 두 언어에 모두 나타나는 근원영역이다. 하지만 그 외에 한국어에는 ‘천, 우는 아기’가 근원영역으로 사용되는 반면, 중국어에는 ‘아래, 어둠, 글씨’ 등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중 ‘슬픔’의 개념은유 양상

근원영역	한국어	중국어
그릇 속의 액체	○	○
적	○	○
물건	○	○
식물	○	○
음식물	○	○
강물·바닷물	○	○
기후	○	○
실	○	○
질병	○	○
천	○	
우는 아기	○	
아래		○
어둠		○
글씨		○

III. 한중 ‘두려움’의 개념은유

‘두려움’ 역시 많은 언어에서 유사한 양상으로 나타나는데,⁵⁾ 한중 두 언

5) 졸탄 퀘벡세스(2000:54)는 영어 ‘공포’의 근원영역으로 ‘그릇 속의 액체, 숨은

어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어의 ‘두려움’이라는 목표영역은 ‘그릇 속의 액체, 적, 물건, 식물, 음식물·술, 강물·바닷물, 폭풍우, 무기·흉기, 실, 추위, 질병, 우는 아기, 신’의 13가지 근원영역으로 개념화된다.(임지룡, 2006:119-131) 반면, 중국어의 경우 ‘두려움’ 역시 체계적 연구가 진행된 적이 없이 간단한 영중 대조연구가 대부분인데, 이 역시 학자들 간의 견해차가 크다. 顧鄉(2005)에 따르면 중국어 ‘害怕’를 개념화하는 근원영역으로 ‘적, 어둠, 신체내의 실체’의 3가지를 들고 있으며, 李秀芝(2008)는 ‘그릇 속의 차가운 액체, 생리변화, 쥐’의 3가지를 들었고, 董偉娟·毛靜林(2008)은 ‘생리변화, 적, 차가운 액체, 질병, 자연력, 쥐, 혼백’의 7가지를 들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장에서는 중국어 ‘두려움’의 개념화 양상에 대해 코퍼스를 통해 비교적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한 후, 임지룡(2006)이 제시한 한국어 양상과 대조, 분석하는 것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먼저 두 언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개념화 양상부터 살펴보자.

1. 동일한 개념화

첫째, 두려움은 용기속의 물질(액체)이다. 중국어의 경우 (24)의 ‘充滿, 涌上, 涌出, 上涌, 滿懷升起了, 滿載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때 신체(마음)는 주로 액체를 담는 용기로 개념화된다. (24g)에서는 ‘눈’을, (24h)는 ‘목소리’를 ‘용기’로 개념화하고 있다. 한국어도 마찬가지로 ‘차오르다, 차 있다, 서러있다, 빠지다, 솟다, 솟아오르다, 가라앉다’처럼 ‘액체’와 주로 호응하는 서술어들이 ‘공포’와 자주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4) a. 他們的心裏充滿恐懼和矛盾。(그들의 마음에 공포와 모순이 가득했다.)

적, 괴롭히는 사람, 초자연적 존재, 병, 정신병, 주체는 분리된 자아, 적, 짐, 자연력, 상급자’의 근원영역을 제시하였다.

- b. 我左等右等不見她們到來，焦慮和恐懼涌上心頭。(내가 한참을 기다려도 그들이 오지 않자, 초조와 공포가 솟아올랐다.)
- c. 從心底涌出的，也許不只是接近死亡的恐懼。(마음속에서 솟아나는 것은 아마 단지 죽음에 가까워졌다는 공포 뿐만은 아닐 것이다.)
- d. 這種恐懼感在他的心中不斷地上涌。(이러한 공포가 그의 마음에서 끊임없이 솟았다.)
- e. 我滿懷恐懼悄悄地下了床。(나는 공포를 잔뜩 느끼며 살금살금 침대에서 내려왔다.)
- f. 他的心裏突然升起了一陣恐懼。(그의 마음속에 갑자기 공포가 떠올랐다.)
- g. 她睜大眼睛，裏面滿是恐懼。(그녀의 크게 뜬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 h. 一聲粗啞、深沉，滿載着恐懼和驚怖的尖則聲打斷了克麗珊娜的睡眠。(허스키하고 무거우며, 공포로 가득한 날카로운 소리가 克麗珊娜의 잠을 깨웠다.)

- (25) a. 무서움이 차오르다.
 b. 두려움이 차 있다.
 c. 두려움이 서려있다.
 d. 두려움에 빠지다.
 e. 공포증이 솟다.
 f. 두려움이 솟아오르다.
 g. 두려움이 가라앉다.

둘째, 두려움은 적이다. 한중 두 언어에서 두려움은 ‘적’으로 개념화된 다. (26)에서 ‘恐懼’와 함께 호응하는 ‘戰勝, 襲擊, 占了上風, 包圍住了, 環抱, 侵襲, 擺脫, 強壓住, 制服, 纏繞, 纏住, 壓迫, 驅散得無影無踪, 擋回去, 趕走, 緊迫, 襲來’ 등의 표현들이 이를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한국어의 경우 (27)을 보면, ‘도사리고 있다, 되살아나다, 밀어닥치다, 엄습해오다, 몰리다, 쫓기다’ 등의 표현은 모두 중국어와 매우 유사하다.

- (26) a. 人們已戰勝了恐懼。(사람들은 이미 공포를 이겼다.)
 b. 整整一天駒子的心都被恐懼所戰勝。(하루 온종일 駒子の 마음은 공포로 점령당했다.)
 c. 被死神包圍的恐懼也不會來襲擊我們。(죽음의 신에 포위당한 공포도 우리를 습격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d. 而最後卻是那種荒謬的恐懼占了上風。(최후에는 황당한 공포가 우위를 점령했다.)
 e. 靈珊心驚膽戰, 那種恐懼的感覺就一下子緊緊的包圍住了她。(靈珊은 무서웠다. 공포의 느낌이 순식간에 그녀를 꼼작못하게 포위했다.)
 f. 他的恐懼如同周圍的黑暗一樣揮之不去, 緊緊的將他環抱。(공포는 마치 주위의 암흑처럼 손을 휘둘러도 사라지지 않고 그를 꼼작 못하게 에워쌌다.)
 g. 漸漸地, 可以說有種恐懼侵襲了他。(점점 공포가 그를 엄습했다고 할 수 있다.)
 h. 人們渴望擺脫恐懼。(사람들은 공포에서 벗어나길 갈망했다.)
 i. 魯恩強壓住心頭的恐懼。(魯恩은 마음속의 공포를 강하게 억눌렀다.)
 j. 開始時, 恐懼已經把他制服了。(처음에는 공포가 이리 그를 제압했다.)
 k. 被痛苦和恐懼纏繞著。(고통과 공포에 휘감겼다.)
 l. 生的魅力與死的恐懼像一對影子緊緊地纏住他們。(삶의 매력과 죽음의 공포가 한 쌍의 그림자처럼 우리를 짝 붙잡았다.)
 m. 他聽見了一聲可怕的叫聲, 讓他的心跳也跟著停了幾拍, 恐懼壓迫得令他難以呼吸。(그는 무서운 비명소리를 들었다. 그의 심장도 함께 몇 박자 멈추었고, 공포가 억눌러서 그는 숨을 쉬기가 어려웠다.)
 n. 便仿佛有把刀子紮進她的心窩, 頓時怒火萬丈, 把恐懼都驅散得無影無蹤了。(마치 칼날이 그녀의 명치를 찌르는 듯했다. 순간 너무 화가 나서 공포를 흔적도 없이 내쫓았다.)
 o. 她熱切地想, 試著把恐懼擋回去。(그녀는 공포를 막아내 보겠다고 간절히 생각했다.)
 p. 幫他把恐懼趕走。(그를 도와 두려움을 쫓았다.)

- q. 他們排成一列, 夜色逐漸深沉, 恐懼依舊緊迫著他們。(그들은 일렬로 섰다. 밤이 점차 깊어지며 공포가 여전히 그들을 바짝 뒤쫓고 있었다.)
- r. 恐懼從地面向他們襲來, 恐懼滲入他們的四肢百骸, 吸幹了他們心靈和肉體的力量。(공포가 지면에서 그들을 공격해왔다. 그들의 온몸으로 침투하여 마음과 육체의 힘을 모두 흡수해버렸다.)

- (27) a.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다
b. 공포가 되살아나다
c. 두려움이 밀어닥치다
d. 두려움이 엄습해오다
e. 두려움이 몰리다.
f. 공포감에 쫓기다

셋째, 두려움은 물건이다. (28)의 ‘帶來, 把恐懼加以誇大, 打入內心最隱蔽的地方, 淹沒, 壓在心底, 藏在內心裏, 給, 留下了, 帶著, 懷著, 抱著’과 같은 표현들이 중국어에서 ‘두려움’이 ‘물건’으로 개념화됨을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한국어 (29)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 (28) a. 內戰給他帶來的是災難和恐懼。(내전이 그에게 가져다 준 것은 재난과 공포였다.)
- b. 小孩在想象中把恐懼加以誇大, 會引起意想不到的驚恐。(아이들은 상상 속에서 두려움을 더 확대하여 뜻밖의 공포를 불러일으킨다.)
- c. 他總是竭力控制自己, 把恐懼和求生的願望深深地打入內心最隱蔽的地方。(그는 늘 전력을 다해 자신을 억제하여, 공포와 삶의 희망을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넣어두었다.)
- d. 把恐懼淹沒在激情的沸水中。(공포를 격정의 물속에 빠뜨렸다.)
- e. 她把恐懼深深壓在心底了, 目的是想忘掉這恐懼。(그녀는 공포를 잊기 위해서 가슴 속 깊이 억눌렀다.)
- f. 約瑟芬只能把恐懼藏在內心裏, 深深地埋下。(約瑟芬은 두려움을 마음속에 감추고 깊이 묻어놓을 수 밖에 없다.)

- g. 她總是給我一種恐懼感。(그녀는 항상 나에게 공포를 가져왔다.)
 h. 他走了, 只給我留下了對未來的恐懼…… (그는 내게 미래에 대한 공포만 남겨놓은 채 떠났다.)
 i. 她的聲音中竟然帶著恐懼! (그녀의 목소리에는 놀랍게도 공포가 실려 있었다.)
 j. 他們經常懷著一種恐懼, 深怕自己的表現不如他人。(그들은 늘 자신이 남보다 못할 거라는 공포를 품고 있다.)
 k. 對女人這種神秘的生物抱著一種莫名的恐懼。(여자라는 신비한 동물에 대해 알지 못할 공포를 품고 있다.)

- (29) a. 겁이 없다.
 b. 겁을 주다.
 c.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d. 공포를 품다.

넷째, 두려움은 추위·차가움이다. 사람들은 두려울 때 신체부위에서 추위(차가움)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이 개념화도 언어보편성을 가지는데, 한중 두 언어에도 유사한 표현들을 많이 찾을 수 있다. 중국어의 경우 (30)에서 ‘不寒而栗’는 ‘춥지도 않은데 떨다’의 뜻으로, ‘공포’로 인해 추위를 느껴 신체가 떨리는 현상을 나타내는 말이다. ‘面如死灰’는 무서워서 얼굴이 차갑게 식은 재와 같음을 말하며, ‘噤若寒蟬’은 ‘두려움으로 늦가을 매미처럼 아무 말 못하다’의 뜻으로, 모두 ‘추위’와 관련이 있다.

- (30) a. 他感到不寒而栗, 身上起了雞皮疙瘩。(그는 두려움을 느껴서, 몸에 닭살이 돋았다.)
 b. 弟弟周波見狀, 直嚇得面如死灰, 噤若寒蟬。(남동생 周波이 상황을 목격하고, 너무 놀라서 얼굴이 식은 재가 되어 무서워서 말도 하지 못했다.)
 c. 嚇得神智迷糊, 冰涼僵硬的死尸貼在他背脊上使他全身一陣陣發冷。(너무 놀라 정신이 혼미했다. 차갑게 굳은 시체가 그의 등에 달라붙어있어, 그는 온 몸이 간간이 서늘했다.)

- d. 登時嚇得魂不附體，滿頭冷汗。(갑자기 놀라서 땀을 잃었으며, 온 머리에 식은땀이 가득했다.)
- e. 他那副樣子頓時嚇得我毛骨悚然。(그의 모습 때문에 순간 나는 놀라서 간담이 서늘해졌다.)
- f. 幸虧沒撞見警車，自己卻也嚇得涼了半邊脊背。(다행이도 경찰차와 부딪히진 않았지만, 자신은 놀라서 등 반쪽이 서늘해졌다.)
- g. 她的脊背上時時爬動著一股涼氣，手心上出了涼汗。(그녀의 등에서 는 수시로 한 줄기 찬 기운이 스멀스멀 기어다니고, 손바닥엔 식은땀이 났다.)
- h. 嚇得他脊背發涼。(그는 놀라서 등이 서늘해졌다.)
- i. 她倒吸一口涼氣，嚇呆了。(그녀는 숨을 한 번 들이키며 멍해졌다.)
- j. 田副官聽了嚇的脊椎骨直冒涼氣。(田副官은 듣고서는 놀라 등골이 서늘해졌다.)
- k. 我嚇得手腳冰涼，動彈不得。(나는 놀라서 손발이 차가워지고 꼼짝 할 수 없었다.)
- l. 她嚇得渾身冰涼。(그녀는 놀라서 온몸이 차가워졌다.)
- m. 他常嚇出一身冷汗。(그는 자주 놀라 온몸에 식은땀이 난다.)
- n. 則使人免不了要想起他那些冷氣森森的書名，諸如“恐懼與顫栗”、“不安的概念”、“致死之症”等等。(사람들에게 “공포와 전율”, “불안의 개념”, ‘불치병’과 같은 서늘한 책 제목들을 생각나게 한다.)
- o. 一個人心裏若是沒有恐懼，手也絕不會這麼冷。(마음에 만약 공포가 없다면 손도 절대 이렇게 차지 않을 것이다.)
- p. 靈珊睜大了眼睛有種近乎恐懼的感覺從靈珊內心深處往外擴散，她覺得脊背發冷。(靈珊은 눈을 크게 떴는데, 공포에 가까운 느낌이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 밖으로 퍼졌다. 그녀는 등줄기가 서늘함을 느꼈다.)
- q. 恐懼像冰一樣包圍了他的心，使他痛苦異常，仿佛把他給凍僵了……(공포는 얼음처럼 그의 마음을 포위하였다. 그는 심한 고통을 느끼며 얼어붙은 듯했다.)
- (31) a. 두려움에 떨다.
b. 두려움에 가슴이 얼어붙다.
c. 두려움에 얼어붙다.

- d. 공포감으로 얼어붙다.
- e. 두려움이 마음을 싸늘하게 식히다.

다섯째, 두려움은 질병이다. (32)에서 보듯이 중국어에서 ‘두려움’은 ‘질병’처럼 사람을 마비시킬 수도(癱軟) 해칠 수도(傷人) 있다. 또 전염병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염되는 것으로(傳染給了, 傳染了, 染上) 개념화된다. 공포를 질병으로 보아 ‘恐懼症’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33)을 보면 한국어의 ‘전염, 고질화, 염병, 퍼져나가다’ 등의 표현이 이에 대응된다.

- (32) a. 恐懼使他全身癱軟, 動彈不得。(두려움으로 그는 온몸이 마비되어 움직일 수가 없었다.)
- b. 情緒方面的疾病像焦慮、恐懼、驚惶、生氣、怨恨、厭惡、罪惡感、無助感, 都跟任何生理疾病一樣的傷人。(초조, 공포, 놀람, 화, 원망, 혐오, 죄악감, 무기력과 같은 마음의 질병은 모두 생리적 질병과 마찬가지로 사람을 해친다.)
- c. 許多年長者還把自己對環境的恐懼傳染給了自己的孩子。(많은 어른들은 환경에 대한 자신의 두려움을 여전히 자식들에게 전염시킨다.)
- d. 她的恐懼突然傳染了他。(그녀의 공포가 돌연 그를 전염시켰다.)
- e. 他的恐懼正像傳染病一樣地染上她。(그의 공포가 마치 전염병처럼 그녀에게도 전염되었다.)
- f. 克服恐懼症的最佳方法, 就是勇敢地面對它。(공포증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용감하게 직면하는 것이다.)
- g. 因恐懼而休克致死。(공포로 인해 쇼크를 받아 사망했다.)
- (33) a. 공포와 무서움이 전염이 빠르다.
- b. 공포증이 고질화되다.
- c. 공포가 염병처럼 번지다.
- d. 공포가 퍼져나가다.

여섯째, 두려움은 음식물이다. 구체적인 언어표현도 거의 동일한데, (34)의 ‘初嚐, 品嚐, 嚐到, 吃驚’와 (35)의 ‘맛보다, 집먹다, 삭이다’와 같은 표

현들은 두 언어에서 ‘두려움’이 ‘음식물’로 개념화됨을 보여준다.

- (34) a. 他們從來不了解什麼叫做“恐懼”，此刻才初嚐“驚恐”的滋味。(그들은 지금까지 ‘공포’가 뭔지 몰랐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비로소 ‘두려움’을 처음으로 맛보았다.)
 b. 我品嚐到一種恐懼之感。(나는 일종의 공포감을 맛보았다.)
 c. 它悄悄地溜進了他的意識，使他嚐到了恐懼的滋味。(그것은 조용히 그의 의식으로 들어와, 그에게 공포를 맛보게 하였다.)
 d. 燈終於亮了，大家卻更吃驚，更恐懼。드디어 불이 켜졌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더 겁을 먹고 더 두려워했다.
- (35) a. 두려움을 맛보다.
 b. 겁을 먹다.
 c. 두려움을 삭이다.

일곱째, 두려움은 무기·흉기이다. 자주 사용되는 것은 (36)에서 보듯이 중국어는 바늘(一根滾燙的針, 細針), 칼(刀劍), 날카로운 비수(匕首), 독가스(致命的黑烟)’ 등이다. 이는 (37)에서 확인하듯이 한국어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 (36) a. 她看見他時，一種新的恐懼像一根滾燙的針向她紮過來。(그녀가 그를 봤을 때, 일종의 새로운 공포가 뜨거운 바늘처럼 그녀를 향해 찌르는 것 같았다.)
 b. 你會習慣於那恐懼。它會像刀劍一樣，變成你的一部分。(너는 그 공포에 익숙해질 것이다. 그것은 마치 칼처럼 너의 한 부분이 될 것이다.)
 c. 當她想著這事情的時候，恐懼刺激著她的腳，使她加快了步子。(그녀는 이 일을 떠올리면, 공포가 그녀의 발을 자극하여 발걸음이 빨라졌다.)
 d. 如同匕首般鋒利的恐懼刺穿了他的靈魂。(비수와 같이 날카로운 공포가 그의 영혼을 관통했다.)

- e. 一種莫名的恐懼感便如繫了麻線的細針紮在心口的那團肉上了。(알 수 없는 공포감이 마치 실을 펜 바늘처럼 명치부분의 살을 찔렀다.)
- f. 但恐懼也如同致命的黑煙一般讓他窒息。(그러나 공포도 치명적인 검은 연기처럼 그를 질식시켰다.)

- (37) a. 공포감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지다.
b. 공포가 가슴을 찌시다.
c. 공포가 바늘처럼 후벼 파다.

여덟째, 두려움은 실이다. 중국어에서 감정은 흔히 실로 개념화되는데, 이는 주로 양사 ‘絲’를 통해 나타난다. (38)의 ‘一絲恐懼, 一絲害怕, 絲絲縷縷的恐懼, 一縷恐懼, 恐懼與希望的交織線’과 같은 표현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38c)는 ‘공포’와 ‘희망’이 직물처럼 서로 짜일 수 있는 것으로 본 예이다. 한국어의 경우에는 (39)에서 보듯이 그 예가 아주 적음을 알 수 있다.

- (38) a. 他說, 乍一聽說這個消息, 感到特別吃驚, 甚至還有一絲恐懼。(그는 이 소식을 듣는 순간 너무 놀랐으며, 심지어 한 줄기 공포마저 생겼다고 말했다.)
- b. 他睜大眼睛, 心裏沒有一絲害怕的感覺。(그는 눈을 크게 떴다. 속으로 조금도 무섭지 않았다.)
- c. 彼此都深切感受到絲絲縷縷的令人毛骨悚然的莫名的恐懼!(서로 간담이 서늘한 미묘한 가다가닥의 공포를 깊이 느꼈다.)
- d. 我擡頭望她的眼睛, 但見一縷純粹的恐懼掠過其間。(나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았다. 한 가닥 순수한 공포가 두 눈 사이를 스쳐가는 것이 보였다.)
- e. 這樣在恐懼與希望的交織線下, 她們對於黃道士的信口開河, 就不知不覺發生了多少信仰。(이처럼 공포와 희망이 교차하는 선 위에서 그들은 黃道士가 아무 생각 없이 함부로 지껄이는 소리에 저도 모르게 약간의 신앙심이 생겨났다.)

(39) 공포를 자아낸다.

아홉째, 두려움은 강물·바닷물이다. ‘두려움’은 중국어에서도 ‘강물·바닷물’로 개념화되는데, (40)의 ‘恐懼潮水般地湧上了, 潮水般上湧的恐懼, 恐懼感象河水泛濫’의 표현들이 이를 보여준다. (41)의 한국어도 마찬가지로 이다.

- (40) a. 極度的恐懼潮水般地湧上了心頭. (극도의 공포가 조수처럼 마음속에서 솟구쳤다.)
 b. 而潮水般上湧的恐懼使她全身僵硬. (밀물처럼 솟아오르는 공포가 그녀의 온몸을 굳게 만들었다.)
 c. 突然一種恐懼感象河水突然泛濫, 一發不可控制. (갑자기 일종의 공포심이 강물처럼 넘치더니, 건잡을 수 없게 되었다.)

- (41) a. 두려움이 밀려들다.
 b. 공포심이 밀려들다.

열 번째, 두려움은 식물이다. 하지만 이 개념화는 두 언어 모두에서 그 예가 많지 않은데, 중국어는 (41)의 ‘種下恐懼的種子’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 (41) 阿森納隊在同城的切爾西隊的心中種下恐懼的種子. (아스날팀은 같은 도시인 첼시팀의 마음에 공포의 씨앗을 심었다.)
 (42) a. 공포심을 심다.
 b. 두려움이 싹트다.

2. 상이한 개념화

이 장에서는 한중 두 언어에 개별적으로 나타나는 ‘두려움’의 개념화양

상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앞에서 중국어에서 ‘슬픔’이 ‘글씨’로 개념화 되는 예를 살펴보았는데, 이는 ‘두려움’도 마찬가지이다. (43)을 보면, ‘두려움’과 같은 감정들은 주로 ‘얼굴, 목, 눈’과 같은 신체부위에 글씨처럼 쓰일 수 있는 것으로 개념화됨을 알 수 있다.

- (43) a. 人的恐懼是寫在脖子上的, 人首先要給自己找一個避難之所, 一個可以藏身的地方。(사람들의 공포는 목에 쓰여 있다. 사람들은 우선 몸을 숨길 수 있는 피난처를 찾는다.)
 b. 史鋼的臉色十分蒼白。敬畏和恐懼明明白白地寫在他臉上。(史鋼의 얼굴이 매우 창백했다. 경외와 공포가 얼굴에 선명하게 쓰여 있다.)
 c. 雖然艾拉克的臉上寫著憤怒, 但是同時也寫上了恐懼。(艾拉克의 얼굴에 분노가 쓰여 있다. 하지만 동시에 공포도 쓰여 있다.)

또 중국어에서 ‘두려움’은 ‘동물(쥐, 닭, 매미)’로도 개념화된다. 중국어에서 ‘두려움’은 특히 ‘쥐’로 개념화한 예가 많은데, (44)의 ‘膽小如鼠, 抱頭鼠竄, 膽怯如鼠, 老鼠膽, 比個老鼠還膽小, 膽小的老鼠, 膽小得像老鼠’와 같은 표현에서 알 수 있다. 또한 ‘두려움’을 나타낼 때, 신체 내부 기관 ‘담’을 사용하는 것도 특징이라 하겠다. 그 밖에, (44h)의 ‘呆若木雞’ (44i)의 ‘噤若寒蟬’에서 보듯이, ‘쥐’나 ‘매미’로 개념화하기도 한다.

- (44) a. 你真是膽小如鼠, 怕什麼呢? (너는 정말 쥐같이 간이 작구나, 뭐가 무서워?)
 b. 你就抱頭鼠竄似的, 逃到了那邊。너는 머리를 감싸고 달아나는 쥐 새끼처럼 저 쪽으로 달아났다.)
 c. 他膽怯如鼠, 什麼都怕。(그는 쥐처럼 담이 작아, 무엇이든 다 무서워한다.)
 d. 我不是老鼠膽, 用不著嚇唬! (나는 쥐처럼 간이 작지 않으니, 나를 겁 줄 필요 없어.)
 e. 雖說武器在手, 比個老鼠還膽小。(비록 손에 무기가 있어도, 쥐보

다도 간이 작다.)

f. 你們這些膽小的老鼠! (겁 많은 쥐새끼 같은 놈들!)

g. 我膽小得像老鼠。(나는 쥐처럼 간이 작다.)

h. 看到我這副人不人, 鬼不鬼的模樣, 一時嚇得呆若木雞。(나의 사람도 아니고 귀신도 아닌 모습을 보고서 사람들은 순간 놀라 났이 나갔다.)

i. 一把閃亮的匕首, 讓全車人噤若寒蟬, 只有你怒睜“雙眼”迎了上去。
(번쩍이는 비수를 보자, 차안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서 입을 다물고 말을 못했지만, 너만 두 눈을 부릅뜨고 앞으로 나갔다.)

반대로 중국어에는 찾을 수 없는 근원영역으로 ‘폭풍우’가 있다. (45)의 예들이 이를 보여준다. 한국어는 감정을 이처럼 ‘폭풍우’로 개념화하는 예를 자주 찾을 수 있는데, 중국어에는 생소한 개념화이다.

(45) a. 두려움이 회오리치다.

b. 공포가 휘몰아치다.

c. 공포 속에 휘몰다.

그 밖에 ‘두려움’의 근원영역으로 ‘우는 아기’와 ‘신’이 있는데, 이는 한국어에서도 그 예가 극히 적어 보편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46) 두려움을 달래다.

(47) 두려움을 받들다.

이상으로 한중 두 언어에서 보이는 ‘두려움’의 개념화 양상에 대해 살펴 보았다. 정리해보면, 두 언어에는 ‘그릇 속의 액체, 적, 물건, 추위·차가움, 질병, 음식물, 무기·흉기, 실, 강물·바닷물, 식물’의 10가지 근원영역이 ‘두려움’이라는 목표영역을 개념화하는데 사용된다. 그 밖에 개별적인 근원영역으로 중국어에는 ‘글썸, 쥐’가 사용되며, 한국어에는 ‘폭풍우, 우는 아기, 신’이 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중 '두려움'의 개념은유 양상

근원영역	한국어	중국어
그릇 속의 액체	○	○
적	○	○
물건	○	○
추위·차가움	○	○
질병	○	○
음식물	○	○
무기·흉기	○	○
실	○	○
강물·바닷물	○	○
식물	○	○
우는 아기	○	
신	○	
폭풍우	○	
글씨		○
동물(쥐)		○

IV. 소 결

여태까지 논의를 통해서 '슬픔'과 '두려움'에 대해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동일한 개념화와 상이한 개념화로 나누어 각각 살펴보았다. 두 언어 모두 감정을 이해하는데 있어 구체적인 근원영역을 설정하고 있으며, 이는 상당히 유사한 양상으로 나타남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 중에 '두려움'의 근원영역인 '추위·차가움'과 '폭풍우'는 넓은 의미로 '기후'로 보고, 이를 좀 더 자세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슬픔'과 '두려움'을 개념화하는 근원영역으로 '그릇 속의 액체, 적, 물건, 식물, 음식물, 강물·바닷물, 기후, 실, 질병'의 9

가지가 공통으로 사용된다. 또 ‘무기·흉기’는 두 언어 모두에서 ‘두려움’의 근원영역으로 나타난다. 이에 반해 ‘우는 아기’는 한국어에만 나타나고, ‘글씨’는 중국어에만 나타나는데, 둘 다 ‘슬픔’과 ‘두려움’에 모두 사용되는 근원영역이다. 하지만 ‘천’과 ‘신’은 한국어에만 나타나는 근원영역으로, 각각 ‘슬픔’과 ‘두려움’을 개념화하는 데 사용되지만 중국어에는 관습화되지 않았다. 또 ‘아래, 어둠’과 ‘동물’은 중국어에만 보이는 근원영역이다. 그럼 앞에서 논의된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슬픔과 두려움의 은유적 개념화 양상을 근원영역별로 분류하여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중 ‘슬픔’과 ‘두려움’의 개념은유 양상

근원영역	슬픔		두려움	
	한국어	중국어	한국어	중국어
그릇 속의 액체	○	○	○	○
적	○	○	○	○
물건	○	○	○	○
식물	○	○	○	○
음식물	○	○	○	○
강물·바닷물	○	○	○	○
기후	○	○	○	○
실	○	○	○	○
질병	○	○	○	○
무기·흉기			○	○
천	○			
우는 아기	○		○	
아래		○		
어둠		○		
글씨		○		○
신			○	
동물(쥐)				○

한 가지 설명을 덧붙이자면 위의 표에서 ‘기후’가 두 언어에서 ‘슬픔’과 ‘두려움’을 개념화하는 근원영역으로 모두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표현양상은 다르게 나타나는데, 한국어에서 ‘슬픔’은 ‘폭풍우, 비’로 구조화되고, ‘두려움’은 ‘폭풍우, 비’외에 ‘추위’로도 구조화된다. 중국어의 경우, ‘슬픔’과 ‘두려움’ 모두 ‘폭풍우’는 사용되지 않고, ‘추위, 차가움’이 근원영역으로 사용된다.

V. 나오며

이상으로 한중 두 언어에서 기본감정 ‘슬픔’과 ‘두려움’을 구조화하는데 사용되는 근원영역들을 중심으로 은유적 개념화 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성을 알 수 있다.

첫째, ‘슬픔’과 ‘두려움’의 근원영역이 두 언어에서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중 두 언어에서 ‘슬픔’과 ‘두려움’은 ‘그릇 속의 액체, 적, 물건, 식물, 음식물, 강물·바닷물, 기후, 실, 질병’의 9가지의 근원영역을 통해 구조화되고, ‘무기·흉기’는 두 언어에서 ‘두려움’을 구조화하는 근원영역이 된다. 이는 한국인과 중국인이 서로 다른 문화권에 속하지만, 같은 인간으로 동일한 감정을 느끼고, 또 신체경험과 주위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많은 부분을 공유하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기본 감정을 표현하는데 있어, 구체적인 체험으로 추상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은유는 범문화적으로 매우 유사한 양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둘째, ‘슬픔’과 ‘두려움’의 개념은유 양상에는 차이점도 있다. ‘천, 우는 아기, 신’은 한국어에만 보이고, ‘아래, 어둠, 글씨, 동물(쥐)’는 중국어에만 보이는 근원영역이다. 이 중 ‘아래, 어둠’은 중국어에서 ‘슬픔’을 구조화하는데 자주 사용되는 근원영역이고, ‘글씨’는 중국어에서 ‘슬픔’과 ‘두려움’을 포함한 감정을 표현하는데 자주 사용되는 근원영역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근원영역들은 그 예가 극히 적어 보편적이라

고 보기 어렵다. 이 같은 개념은유의 차이는 두 나라의 문화적 차이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슬픔'과 '두려움'의 개념적 은유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두 언어에서 이와 관련된 관습적 표현의 의미가 상당부분 유사한 양상으로 나타나며, 이는 인류의 신체 및 일상경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參考文獻>

- 岳好平(2009), <英漢“悲傷”情感隱喻的解讀>, 《中南林業科技大學學報(社會科學版)》 第3卷 第2期。
- 李秀芝(2009), <表示“悲傷”的英漢習語認知對比分析>, 《中央民族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第4期。
- 董偉娟、毛靜林(2008), <英漢“恐懼”隱喻的對比分析>, 《台州學院學報》 第30卷 第4期。
- 李秀芝(2008), <英漢習語對比分析—以“恐懼”概念隱喻爲視角>, 《民族教育研究》 第6期。
- 顧鄉(2005), <漢語、英語中表示“害怕”的隱喻和轉喻>, 《修辭學習》 第2期。
- 졸탄 퀘벡세스(김동환·최영호 역 2000), 《은유와 감정—언어, 문화, 몸의 통섭》, 동문선
- 임지룡(2006), 《말하는 몸—감정 표현의 인지언어학적 탐색》, 한국문화사
- 왕여방(2006), 《기쁨과 슬픔의 표현 양상 한·중 대조 연구》, 석사학위 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中文提要>

“悲傷”和“恐懼”是人的基本情感。人類具有共同的生理和心理基礎，概念隱喻在很大程度上依賴於人類思維模式的共性，但同時也表現出民族文化特征。本文從認知語言學的概念隱喻的角度，對韓語和漢語中表示“悲傷”和“恐懼”情感表達進行了系統的對比研究，並對它們的共性和個性進行了分析和論述。研究發現，表示“悲傷”和“恐懼”的韓漢語表達具有很多相同的概念隱喻，韓漢語“悲傷”和“恐懼”情感存在著“容器中的液體、敵人、事物、植物、食品、河水·海水、氣候、絲(線)、疾病”等9種共同的概念隱喻。此外，兩種語言還具有“恐懼是武器·凶器”的概念隱喻。我們同時還發現兩種語言表示“悲傷”和“恐懼”的細微差異，漢語中不用“布、哭的孩子、神”來表達“悲傷”或“恐懼”情感，而韓語中不太用“下，黑暗，字，動物(老鼠)”來表達“悲傷”或“恐懼”。

從表面上有差異的語言現象的背後往往蘊涵著共同的認知機制，反映出人類思維的普遍性，如韓語的“暴風雨”和漢語的“晴天、陰天”實際上都屬於“氣候”隱喻。究其原因，其共同點在於人類人體共同的身體經驗，而差異來源於文化模式的不同。

주제어: 情感, 悲傷, 恐懼, 概念隱喻, 認知